特別寄稿

農村開發에 関한小考

大阪商業大學助教授

古田昭作

國民 生活水準의 實質的向上 勞動時間이 짧고도 所得이 增加하고 物價가 싸며 豊富를 위하여서는 生産性의 向上을 모든 産業에서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에서도 年來 工業 農業의 大部分에 걸쳐, 生産性向上은 顯著한바 있으나 반면 物價上昇率도 높다. 때문에 給與나 所得이 아무리 增加하여도 美國과 같아지지는 못할 뿐더러 物價가 預金利子를 上廻하는 結果까지도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原因은 무엇인가?

日本의 經濟成長이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한 大企業이 利潤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果然 그럴까?

過去 數十年間 物價가 오르지 않은 것도 있다. 例를 들면 1500cc級의 自動車의 경우, 10年前에는 60萬圓 하던 것이 現在는 50萬圓으로 살수 있고 또한 品質도 向上되고 있다. "테레비존" 受像機도 14吋 黑白이 6萬圓에서 4萬圓臺로 떨어졌는데도 品質은 오히려 向上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生産工場의 從業員의 給與는 10年間에 約2倍로 上昇하고 있다. 이것은 生産性의 向上으로 給與를 上昇시킨 것이다. 日本의 工業全體의 平均値로서는 10年間에 生産性은 約 2.2倍 上昇하였으나 이것은 "오토메이숀"化의 推進에 依한 것이다.

10年間에 給料를 2倍로 올려서 生産性을 向上시켰으므로 팔 商品의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日本全體에서 볼때 10年間에 生産性이 거의 向上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곳도 給與는 要求에 따라 올리지 않을수 없는 것이라면 當然히 物價는 上昇한다.

또 한가지 日本은 計劃없이 工業生産을 急展시켰기 때문에 公害가 많이 발생하여 自然을 破壞한 結果, 農作物 魚類食品이 汚染되었기 때문에 食糧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物價上昇을 가져 오는 한편 一部의 生産工場에서는 急激한 公害防除設備에의 投資나 補償金支出등으로 Cost에 影響을 끼쳐 더욱 物價上昇을 부채질 하고 있다. 工業初期에서 公害防除對策을 取하였다면 이와같은 損失은 防止할 수 있었다.

그렇다치고, 여기 韓國과 臺灣의 두나라를 比較하여 보자.

韓國은 1966年~1969年의 3個年間에 平均給與指數가 2.9로 上昇하고 있는데 物價指數는 同年間에 2.7로 上昇하고 있다. 即 實質生活向上分이 단지 0.2이다. 한편 臺灣에서는 平均給與指數가 2.3이고 消費者物價指數는 1.3이 될 뿐이다. 때문에 實質 1.0 다시 말해서 國民生活은 2倍로 向上된 것이 된다. 이것은 韓國이 高層빌딩을 짓고 高速道路를 建設하였으나 一般工業이나 農業의 生産性向上이 아직 充分치 못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臺灣에서는 高層빌딩이나 高速道路는 1971年~1972年에 겨우 손을 댈 형편에 있는데 反해서 諸工業과 農業의 生産性은 日本과의 合弁會社의 指導와 刺戟을 받아서 近年 대단히 向上되었다. 값이 싸고 品質이 좋은 商品이 國內를 潤澤케 하고 나아가서 剩餘分이 輸出되므로 外貨保有도 8億弗을 넘고 있다. 그위에 臺灣에는 嚴冬이 없고 資源이 많은 豊沃한 土地로서 戰災를 입은바가 없으니 韓國이나 日本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여기서 問題를 本論으로 돌려서 日本에서는 生産性向上이 顯著한 部門이 있는 反面 그렇지 못한 部門도 많으며 그 위에 給與는 全國的으로 上昇하고 同時에 消費購買意慾은 높아서 物價는 飛躍的으로 上昇하여 今後는 實質的生活向上은 그렇게 높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日本보다도 經濟成長率 GNP向上率도 낮고 經濟的으로 苦心하고 있는 美國의 政府豫算은 日本의 約 10倍, 人口는 2倍뿐이다. 그러나 稅金은 日本人의 5倍를 내고 있다. 한便 天然資源도 豊富하고 國土도 넓은 데도 "필리핀"과 같은 低開發國인 곳도 많은데 비해서 日本과 같이 資源이 없는데도 美國과 같은 生活을 維持하는 "스위스"같은 先進國도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 하다 보니 "文明은 生産性의 向上이다" "참된 豊富한 生活은 生産性의 全面的 向上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日本은 生産性이 낮은 씨스템속에서 長時間 일하고 美國의 1/5의 生産밖에 올리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면 生産性의 向上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1) 機械化 (熟練者가 아니라도 婦人이나 어린애도 할수 있다.)

2) 人間의 專門化 (美國의 秘訣은 이것이다.)

3) 사람과 物件을 組合시키는 管理技術의 優秀性—即 씨스템의 適否가 生産性에 큰 影響을 주게 된다.

그러면 農村에서는 어떤 面에서 生産性을 向上하면 좋은가? 또, 生産性向上에 이르기 까지의 節次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農村開發의 本論에 들어 가기로 한다.

먼저 日本農村의 過去로 부터 現在까지의 歷史的 實例를 들어서 紹介하기로 한다. 알다싶이 日本은 韓國과 같이 天然資源이 不足하며 人口密度는 크고 嚴多이 있다.

1920年 30年 40年代까지의 日本은 都會地와 農村의 生活은 큰 差가 있었다. 다시 말해 東京이나 大阪에서는 흰 쌀밥을 먹을 수 있어도 東北地方이나 九洲 北陸地方의 쌀生産地에서는 보리, 피, 조밥을 먹고 때때로 겨우 쌀밥을 먹을 정도였다. 당시는 農村開發의 意欲도 없고 일하는 方法도 알지 못하였다.

러던 것이 1950年代 부터 農村開發에 熱을 띤 사람들의 體質改善으로 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뼈가 빠지도록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라면 어이없는 노릇이다. 밥 그릇을 줄이기 위하여 서도 나는 都會地에 나가 일하리라 하고 먼저 農村의 젊은 次男, 三男이, 뒤이어는 젊은 아녀자들이 農村을 뛰쳐나갔다. 남은 것은 老人과 長男夫婦뿐, 적은 勞動力으로 田畓을 지켜가려니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여기 하나 離農한 젊은 男女를 돌아오게 하려면 아무래도 편하게 農事를 지을수 있고 부유하게 살아 갈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舊習을 打破한 農民의 敎育農業生産技術에서부터 人格陷冶 常識의 涵養에 이르기까지 (대개 이제까지는 농민은 工夫하지 않아도 된다. 농촌은 敎育이 必要없다고 이야기 되어 왔다) 意欲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都會地로 뛰쳐 나갔던 아들 딸중에는 都會地에 서툴어 되돌아오는 者도 있다. 이들도 農村改造에 參與하였다.

첫째로 本業인 農業은 적은 人員과 적은 勞動時間으로 해치우고, 品質向上과 收獲量向上을 目標하자.

둘째로 남은 勞動力을 각기 家族의 體力이나 趣味에 맞추어 副業을 하여 수입을 증가시키자.

수입이 증가하면 本格的인 農業機械化를 실시하고 林業 (造林, 觀賞樹栽培, 木工加工業을 包含한다.) 家畜 果實 野菜의 季節栽培등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副業을 本業과 代替하여 오히려 農業은 겯일로 해나가자.

住宅과 生活改善으로 素朴한 大自然속에서 都會地와 같은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먼저 이제까지의 第1 本業이었던 벼농사는 어떻게 變하였는가?를 具體的으로 說明하자.

苗圃에서 苗를 키워서 논에 移植하는 在來의 方法으로서는 勞力이 많이든다. 即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肥料를 주고 거두어 드리고 乾燥시키고 調整하는 一貫作業에 든 總時間은 146.18時間이나 所要된 것이 耕耘機·苗植機·폼푸, 바인더 乾燥機등의 機械를 쓰면 19.45時間이라는 半以下의 時間으로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트랙터", "콘바인", "라이스센터"등의 大型機

械를 사용하면 단지 19.45時間으로 된다. 모내기는 必要치 않으며 논에 벼씨를 直接뿌리니 一層 빠르다.

例를 들어 보면 이와 같은 機械化로 10a당 쌀 450kg를 生産하는데 22人의 勞力이 必要하며 1時間當 2.4kg분의 쌀 밖에 生産못하던 것이 "트랙터"를 대용하는 大型農業이 되면 10a당 740kg을 2.3人이, 또한 1時間에 40kg (約20倍)를 生産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田畓의 두랑을 없애고 農民이 株主가 된 株式會社大農場을 老人, 女子와 少數의 젊은 農業技術者에 依하여 經營하고 農作物의 賣上高를 配分하는 方法을 日本에서는 取하고 있다.

한편 果實園, 菜疎園, 酪農, 林業등을 農林産機械 農藝化學의 驅使로서 各 농촌에서 사용되고, 더욱 果實쥬스나 果實통조림 (귤, 포도, 복송아, 사과, 배, 토마도, 등) 竹細工, 木工細工, 建材類까지 農村의 協同組合에서 加工되어 都會地로 販賣된다. 貯水池나 灌漑用水路에서는 淺水魚養殖이 또, 山中에서는 싸리버섯의 人工栽培, 고사리의 栽培, 그 위에 꾸정물이나 분뇨를 淨化하기 위하여 "쿠로레라" (絲藻)를 繁殖시키고 이 "쿠로레라"를 飼料 (蛋白質 8.0%의 營養食)로 하거나 "요구루트"등의 食品添加用으로 販賣한다든가 하는 一石二鳥를 실시하는 것도 있다.

이들의 農業工業化에는 資本이 必要하나 이것은 農業協同組合에서一括購入하여 代金하여 주며 이 借金을 갚기 위하여 농가에서는 老人은 內職 男便은 가까운 工場에 다니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大學에 가 있는 子女들도 "알르바이트"로서 授業料나 용돈을 번다. 農繁期에는 家族全部가 農事에 열중하지만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田畓의 일은 극히 短時日에 끝나므로 근무에 지장은 없다. 工場勤務果樹園 農林加工場勤務가 主가 되며 農事는 오히려 겯일이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우기 工場 事業所 근무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內職—手工業, 手藝, 工藝品 만드는데 열중함으로써 당연히 수입이 많아진다.

집을 改築하거나 新築하여 부엌을 電化하면 快適한 生活은 都會以上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次男, 三男들도 都會로 부터 돌아온다.

농업이 近代化함에 따라 自然을 破壞하지 않는 調和가 이루어진 綜合開發計劃이 필요하게 된다. 농촌의 知識層으로서 開發審議會가 組織되고 基本構想 (未來像 計劃의 目標, 計劃의 大綱, 農民生活의 장래)을 한다. 即 基本計劃 (土地利用, 道路交通, 通信, 水資源開發과 河川改修, 市街地開發, 公園, 綠地)

産業開發 (農業 林業 工業 勞動)

自然保護와 觀光, 住宅開發과 居住水準의 向上 生活環境의 整備 (上下水道 淸掃, 衛生醫療, 墓地對策, 公害對策)

農民資質의 向上 (學校敎育, 社會敎育, 綜合野外 敎育센터, 靑少年對策 社會體育)

社會福祉의 充實 (生活保護 老人 兒童福祉 등)

防災 治安의 確立(消防, 水防, 交通安全對策, 治安)

綜合開發計劃推進의 方策 (行政運營의 合理化 財政基本計劃의 樹立 廣域行政의 推進 開發會社의 指導育成) 등등 방대한 15年計劃이 立案되기도 한다.

現在 日本의 農村은 都會로부터의 住宅開發이나 公害를 避하여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工場誘致가 活潑하여 큰 변모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放置하면 自然이 破壞되고 公害가 農村에 까지 侵透될 우려도 있다. 아무리 收入이 늘어도 이것은 困難하다. 때문에 自然과 調和가 이루어진 새로운 部落만들기 洞里·面 만들기가 里·面 合併이라는 廣域行政化로 進行된다. 勿論 아무리 훌륭한 計劃案이라도 財源이 없으면 開發은 되지 못한다.

國家 地方公共團體의 보조금도 필요하지만 地方民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地方稅收도 증가하지 못한다. "옷이 날개"요 "金剛山도 食後景이라"고 하듯이 都會와의 所得·生活水準·敎育의 格差를 좁히는 것이 先澤問題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모든 時間을 아껴서 일할것, 일할수 있는 곳을 찾을 것이며 이것은 手工藝나 農業副業이나 아무거나 좋다.

장구벌레를 먹는 "탑프미노" (熱帶魚의 一種)는 데드로 등 河川의 부패有機物을 淨化하는 能力을 가진 것을 최근 日本은 德島市 防蚊硏究所에서 발견하였다. 이 "탑프미노"는 더러운 곳 (下水處理施設 팔프 工場廢地)에서 번식한다. 生物淨化가 싸구려로 되니 좋다. 또 "구로히메유나가히제"는 벼의 害虫을 먹는 生物農藥으로 登場하였다. 이와 같은 小動物을 農村에서 養食하면 淨化와 收入源을 얻는 一石二鳥가 될 것이다. 農業의 副業도 수없이 많은 것이다.

모든 것이 充實하여지면 밤에 하던 手內職은 하지 않아도 되고 休日은 편안히 쉴 수 있고 여가도 즐길수 있게 된다.

日本의 農村은 漸次 富하여지고 있지만 10年前이나 現在나 農業自體도 기계화되고 能率도 좋아졌으나 家族 모두가 일한다는 데는 다름이 없다. 단지 生産性向上에 因하여 生活水準의 向上을 본것 뿐이다. 그런데도 먼저 言及한 바와 같이 아직 美國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美國과 같이 될때까지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一部에서 週休 2日을 이야기하는 者도 있으나 資源이 없고 人口가 많은 日本으로서는 美國과 같이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라고 日本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韓國은 多幸히 日本에 비하여 公害나 自然破壞는 아직 甚하지 않다. 싸고도 좋은 食品의 增産을 農業機械化 農藝化學의 驅使로서 적은 勞力으로 이룩하고 그 남은 勞動力과 時間을 他工業, 林業, 農業, 農藝化學 民藝等의 副業에 精進하면 所得은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勿論 여기서 말한 副業部門에서도 生産性向上을 위하여서는 機械化하는 것이 좋은 것은 當然하다.

資源이 적은 韓國이나 日本에서는 싸고 좋은 物件을 많이 增産하여 自給自足을 꾀하고, 한편 外國으로서는 加工品을 輸出하지 않으면 經濟力을 伸張할 수는 없다. 하루 속히 주저말고 계속적으로 농촌개발의 "푸로젝트"를 促進하여야 한다. 또한 副業은 原料를 他地方에서 가져다 加工만 한다면 運賃이 먹힌다. 될 수 있으면 각 농촌에서의 特産資源이 없는 곳은 特産資源을 만드는 일 부터 먼저해야 한다. (例를 들면 造材 人工農園 人工淡水魚 조개 增殖등)

無에서 有를 만들어 내는 것은 農村 사람들의 자각과 하고져 하는 意志에 달려 있으며 空論이 아님을 强調하며 나의 이야기를 끝맺는다.